World p/04

北이 만든 태블릿PC 얼마?

Sports p/21

이대호 4년 190억원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까지 연결

NEWS p/03

1분 야근해도 수당 주는 회사

JOB p/11

ENTERTAINMENT p/16

LOVESTORY in DECEMBER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이웃 간의 사랑나눔,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인 디셈버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아름다운 클래식과 오페라 명곡 등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선율로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감동이 가득한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25일부터 독자초청 이벤트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2013. 12.11(수)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주최 metro 주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한별 '미소년' 파격변신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이대호에게 큰절 해야지"

'거리의 시인' 희망을 속삭이다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가능성을 발굴하는 특이한 문학상이 있다. 올해 2회째인 '민들레 예술문학상'은 노숙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어려움과 다양한 정서들을 문학이라는 매개를 활용해 노숙인 스스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노숙인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인수씨를 만나봤다.

노숙인을 예술가로 – 2회 '민들레 예술문학상' 시 부문 대상 김인수씨

김인수 씨는 내 시를 통해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손진영기자

고물 줍던 손으로 한줄한줄 가둬두었던 말 토해내 –"나보다 힘든이에게 힘 되길"

◆ 쉼터 인문학 강좌 듣고 "그래 한번 써보자"

첫눈이 내리던 1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두레교회로 그를 찾아갔다.

김씨는 태어났을 때 핏덩이인 채 산속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다. 확실한 자신의 나이를 몰라 대충 어림잡아 52세 정도 됐을 거라고 했다. 그는 두레교회 쉼터에서 거주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

"월수입의 70% 이상은 저금을 해요. 돈이 될 만한 고물 줍기·쌓기 등을 하는 고물 수집이 원래 내 일이지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끔씩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주우러 다녀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면 오후 7시에 나가 일을 시작하기도 하죠."

이번 문학상에 시를 공모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두레 쉼터에 입소하면서 탐혜영 작가가 강의한 인문학강좌를 듣게 되면서다. 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지 몰라 실제 자신이 고생하고 느꼈던 것들을 시로 표현해봤다.

"시를 쓸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 내가 무슨 시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런 큰 상을 받게 되니 부끄러워요. 영광스럽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작가님, 정말 감사해요."(웃음)

◆ "도움받은 만큼 봉사하는 인생 살고 싶어"

공모전 심사 당시 4명의 심사위원들 모두가 김씨의 시를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인 김사인 심사위원은 "인수씨의 한 행 한 행에 담긴 간절한 마음이 심사위원들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고 호평했다.

문학상 수상자들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하고 대상에게는 상금도 지급된다. 또 주거복지재단과 협력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시상금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활용된다.

가족도 없고 평생 외로워하며 고생만 하던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감을 갖게 됐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이제는 조금씩 환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써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밝은 성격은 아니지만 이번 수상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잡았어요."

또 틈틈이 써놓은 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큰 공모전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시는 아니지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노숙인이라는 선입견은 잠시 접어 두고 이 시를 통해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고물 수집이다. 현재는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누가 누굴 욕하는가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 18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핵심 후속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11일과 15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꼽을 수 있다.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정연설이 오히려 갈등만 키운 것. 일부 의원들은 "현 시국에 대한 올바른 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동성명을 냈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시정연설을 혹평한 의원들이야말로 신속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날 논의하려고 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앞선 국토위 심사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충분히 법안 의결이 가능했다. 결국 시정연설은 핑계였을 뿐,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이 법안 처리 무산의 진짜 원인인 셈이다.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정치 싸움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좋은 단편 이미 많이 봤다.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1운동, 간토 대학살 희생자 명부 첫 확인…이름·나이 등 자세히 기록

일제 피해보상 전기 될까

3·1운동 일본 관동(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 일제 강제징용자 세부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돼 공개되면서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국가기록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9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명부는 1952년 12월15일 제106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경국 가운데 국가기록원장과 직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과 일본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는 1권 217매에 지역별로 모두 630명의 희생자가 읍·면 단위로 이름, 나이, 주소, 순국 일시, 순국 장소, 순국 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동안 3·1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들 중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 수는 391명에 불과한데, 이번 피살자 명부 발견으로 그 숫자는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는 1권 109매에 모두 290명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피살자 수는 6661~2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는 지금까지 작성된 피징용자 명부 중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으로, 65권에 22만9781명의 명단을 담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명부는 전국적인 정부 조사 결과인 데다 주소나 생년월일까지 포함됐을 정도로 세세해 앞으로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준 기자 mkim@metroseoul.co.kr

기초연금 '10만원 보장' 명시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소 기초연금(부가연금액) 10만원을 보장하고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부가연금액을 뺀 나머지 10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 비례해(×⅔) 지급액을 깎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가연금액과 조정계수 3분의 2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 자체에 부가연금액과 조정계수를 명시했으며 기준연금액도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또 5년마다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은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을 명확히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새누리 "강기정 물리적 제재 유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서영교(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목을 잡은 채 앉은 사람)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전날 청와대 경호 지원요원에게 폭행당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강기정 의원 사건과 관련해 대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김성호(가운데)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석한 정문헌 "NLL 포기 발언 있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 의혹과 관련, 19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북방한계선(NLL)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어떤 반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무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서상기 의원을 조만간 소환하는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민준 기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학 대학생 아이돌보미 모집

서울시가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벌 수 있는 '대학생 아이돌보미'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내년 1월 14일 이후 활동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5500원(오후 9~11시, 주말 6000원)이다.

문의: 1577-2514

복지 온조 특별우표 5종 발행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20일 '백제 온조 특별우표' 5종 180만 장을 발행한다. 주몽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 비류와 온조의 남하, 미추홀로 간 비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는 온조, 백제 통합 등 5가지 장면을 그림과 함께 이어가듯 연결해 표현했다. 내년 11월에는 가야 김수로 특별우표를 내놓는다.

20대 3명 중 1명 "남북 통일 필요없다"

20대의 3명 중 1명꼴로 남북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통일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일반 국민(78.0%)이 공감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적어져 20대 66.5%, 30대 74.9%, 40대 84.6%, 50대 이상 84.2%로 나타났다.

"너무 많이 샀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김장 채소 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무와 배추 등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나가오는 연말 쓸 돈 태산인데 월급 빼고 다 오르나

주택용 전기료 2.7%↑

가구당 월평균 1310원꼴 부담 늘어…산업용은 6.4% 올라

전기요금이 10개월 만에 평균 5.4% 인상된다. 일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은 소폭 인상됐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대신 도시가스용 LNG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반해 기업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커 산업계에 반발을 불러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됐고,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인상됐다. 반면 교육용은 동결됐다. 또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 전력은 5.4% 올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1310원꼴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LNG 세금을 낮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차관은 "LNG 세금을 낮춘 것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결된다. 가계 측면에서 보면 전기료 인상은 LNG 세금 낮춘 것으로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기료는 앞으로도 또 오를 전망이다. 한 차관은 "전기와 비전기 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향후 상대가격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부 방침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성명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균기자 ksh@metroseoul.co.kr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평균 2701원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 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데 매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전세·승용차 등) 등의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10월에 이를 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하며 지방세 과표금액 역시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부터 적용된다.

변동 자료 적용으로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으며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701원 오른 셈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 2012년 아동학대 행위자 <출처: 보건복지부>

총 6403건

부모	이웃	조부모	친인척
5370건 (83.9%)	523건 (8.2%)	240건 (3.7%)	175건 (2.7%)

그래픽 박상철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403건

매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6403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199건에서 2011년 1만146건, 지난해 1만94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지난해 6403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는 부모가 83.9%(537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사·직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 등에 의한 학대 8.2%(523건), 조부모 3.7%(240건), 친인척 2.7%(175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정기자

5호선 하남까지 잇는다

상일동역부터…2020년 개통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최종 완공·개통 시기는 2020년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이어지는 연장 구간인 "하남선 복선전철"에 대한 기본설계를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확정, 2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140억원을 편성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5호선 연장 구간은 현재의 종점인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을 잇는 7.725km 구간이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시 두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1단계 풍산동까지는 2018년, 나머지 구간 2단계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철의 수송 분담률을 2020년도까지 40%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구간에는 정거장 5곳이 들어선다. 상일동역에서 조정로 강일육교, 미사지구 중심 상업지구, 덕풍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신장초교 사거리, 창우초교 앞 삼거리 등이다.

/김현정기자

패션관련 전공 대학생 '구찌 장학생' 지원 접수

한국장학재단이 패션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찌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5명은 1년간 등록금 전액(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되는 구찌 패션쇼 관람과 브랜드가 창립된 피렌체의 구찌 공방 탐방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 2·3학년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코스모폴리탄 홈페이지(cosmopolitan.joins.com)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펠레 1000골 달성

1969년 11월20일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가 산투스에서 909경기 만에 마침내 1000골을 달성했다. 브라질의 축구영웅이었던 그는 1999년 IOC가 뽑은 '20세기 최고 운동선수'로 선정되었는데 펠레에 이어 2위에 선정된 마이클 조던은 "펠레라면 기꺼이 농구 황제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우슈비츠 방문한 반 총장 18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부 오시비엥침에 있는 옛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방문한 반기문(오른쪽) 유엔 사무총장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홀로코스트 생존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수천 명의 수감자가 총살당한 처형장의 벽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신화 연합뉴스

중국 '스모그 패닉' 해프닝

6일 만에 시커멓게 변한 쥐의 폐 사진 인터넷 유포… 알고보니 사실무근

최근 중국 인터넷에 '스모그 때문에 쥐의 폐가 검게 변했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기사와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을 경악시켰다.

기사는 중국 명문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 '스모그 때문에 쥐의 폐가 6일 만에 검게 변했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정상 쥐'와 '스모그 쥐'의 폐를 비교하는 사진도 함께 실었다.

그러나 기사에서 언급된 푸단대학 공공위생학원의 쑹웨이민(宋偉民) 교수는 19일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쑹 교수는 "취재에 응한 적도 없다"며 "폐가 한번 검게 변하면 원래대로 붉은색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전에 쥐의 폐에 초미세먼지 농축액을 주사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선홍색을 띠는 정상적인 쥐의 폐(위)와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에 오염된 쥐의 폐로 소개된 사진. /신화망

그는 "스모그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전통 의약품이 폐를 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쥐 실험을 했다"며 "실험 내용을 한 회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모그 쥐' 기사는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모그 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불안과 공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올해 스모그 발생 일수가 52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스모그 대란을 겪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유엔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초미세 먼지를 동반한 스모그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스모그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북한이 만든 태블릿PC 57만원

'삼지연' 이베이서 낙찰

북한산 태블릿PC '삼지연'(사진)이 세계적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에서 546달러(약 57만7000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 인터넷매체인 '노스코리아테크'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최근 이베이를 통해 삼지연을 경매에 올린 결과, 모두 12명이 53차례 응찰해 이같이 낙찰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낙찰 주소는 중국 지린성 엔지로 알려져 배송비 20달러를 합치면 최종 낙찰가는 566달러(약 6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 박사가 평양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180유로(약 26만2000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삼지연은 7인치 화면에 저장용량 4기가바이트(GB), 카메라와 키보드, 메모리카드 등이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앵그리버드'를 비롯해 14개의 게임과 141권의 전자책,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프로그램 등이 탑재됐다. /이국명기자

'살' 앞에 작아진 여장부

과체중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대선 앞두고 다이어트 돌입

지우마 호세프(63·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난 호세프 대통령은 과체중 우려로 다이어트에 본격 돌입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20여 일 전부터 식단 조절에 들어갔다. 아침 식사량을 줄였고 간식은 일절 손에 대지 않는다. 또 고기와 과일, 샐러드 위주로 세끼 식단을 짰다.

호세프 대통령은 바쁜 일정으로 운동 시간이 줄어 올 한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측근들은 건강은 물론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한 언론 노출 등을 고려해 대통령에게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프 대통령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수시로 체중을 확인한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그는 지난주 페루 방문 당시 취재진에게 다이어트 사실을 공개하며 "체중이 좀 준 것 같지 않느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체중은 '특급 기밀'로 아무도 정확한 체중은 알지 못한다.

한편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호세프 대통령은 빈곤퇴치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펼치며 브라질 국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 대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선미기자

미 화성탐사선 발사 성공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8일(현지시간) 무인 화성탐사선 '메이븐'(Maven) 발사에 성공했다.

NASA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센터에서 메이븐을 발사했다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10개월간 7억㎞를 이동해 내년 9월 22일 화성에 도착, 탐사에 들어간다. 이전 탐사선들은 대부분 화성 표면을 조사했지만 메이븐은 대기 탐사를 주로 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메이븐의 탐사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습했던 화성에서 왜 물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밝힐 계획이다.

나사의 화성 탐사는 이번이 21번째다. 메이븐에는 총 6억7100만 달러(약 7090억원)가 투입됐다.

한편 인도는 지난 5일 첫 번째 화성궤도 우주선 '망갈리안'을 발사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코스닥
2031.64 (+20.63)	505.50 (-4.04)

금리	환율
2.85 (+0.05)	1061.50 (-2.50)

뉴스&뉴스

내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KDI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정부의 성장률 예상치인 3.9%, 한국은행의 3.8%보다 다소 낮고 국제통화기금(IMF)의 3.7%와 같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3.5%)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컨센서스는 3% 중반 대에 머무르고 있다. KDI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했다. /세종=기자

고층아파트 6만6000가구

● 서울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6만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114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오피스텔 제외)는 총 86개 단지에 6만632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G전자 소유 헬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충돌한 사고를 고려해 높이 60m 이상 철탑 등 구조물과 150m 이상 주거용 일반 건축물에 항공장애표시등(경광등)을 달도록 했다. /김현정기자

아파트 20% 전세가>매매가

●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19만8005가구의 평균 전세가 2억8526만원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가구는 총 24만2795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수 대비 20%가량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노원구는 전체 12만6120가구 중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아파트가 7만1036가구로 56.36%에 달했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용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250-2100
독자센터	02)721-0885

2002년 5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198

캠핑용 텐트 10개중 7개 찢어짐 취약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텐트 대부분이 찢어짐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주요 텐트 브랜드의 4인용 거실형 텐트 10종을 비교 평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브랜드는 비진산업(한국) 코베아(한국) 콜맨(미국) 아웃웰(덴마크), 스노우피크(일본) 등 5개며 브랜드별로 고급형과 일반형 각각 1개씩이 포함됐다.

찢어짐을 측정하는 인열강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노우피크의 랜드락 제품, 아웃웰의 콘코드M, 코베아의 아웃백 플렉 등 고급형 제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제품의 인열강도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못 미쳤다.

자세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은혜기자

<모델하우스>

방문객 수만명 청약은 수백명 왜?

경품만 받으려는 고객 상당수…건설사 숫자 부풀리기 '한몫'

모저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모델하우스 방문객도 늘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선보인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는 5만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고도 정작 청약률은 저조한 사업장도 급증하는 추세다. 각종 이벤트나 경품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청약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애초 수만 명의 방문객이 거품인 경우도 많다.

◆실수요자 아닌 방문객 거품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SK건설이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분양한 '인천 SK 스카이뷰'는 3순위까지 0.65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견본주택에는 개관 이후 3일간 무려 5만8000명이 다녀갔지만 순위 내 마감은 이루지 못했다.

앞서 공급된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일산 요진 와이시티', 'DMC가재울4구역' 도 어김없이 1만5000~3만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공식 발표됐다. 하지만 결과는 대규모 미달 사태였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모델하우스 열기에 비해 청약 성적이 부진한 이유로 상당수의 방문객이 실수요자가 아닌 경품을 받고 해당 건설사의 모델인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구경꾼'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의 분양소장은 "휴지, 비닐장갑 등 선물만 챙기고 정작 유닛 구경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상당하다"며 "처음부터 카페테리아 내 빌산 등을 공짜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들르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알바 동원하고, 방문객 수 부풀리기도

방문객 수를 부풀려 홍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기가 예전만 못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알바를 동원해 방문객이 많아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견본주택이 썰렁하면 수요자들이 보러 왔다가도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포장이 돼야 해당 아파트가 인기가 많고 좋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또 분위기에 휩쓸려 수요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할 경우 청약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건설사 홍보 담당자는 "하루 3000~4000명, 사흘간 1만여 명만 다녀가도 사실 엄청 많은 숫자"라며 "같은 업계 사람끼리 2만~3만 명이라고 하면 으레 부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문객 수 부풀리기가 수요자들의 착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수요자가 과장된 방문객 수만 듣고 인기 단지라고 잘못 판단해 계획에 없던 청약에 나섰을 경우,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박선옥기자 pso582@metroseoul.co.kr

방콕 간 로봇선생님 '키봇2' KT가 19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의 임팩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ITU 텔레콤 월드 2013'에 스마트 에듀테인먼트 로봇 '키봇2'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KT 제공

'시어머니' 늘어나는 금융권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외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금융권의 시어머니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자칫 올바른 영업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사태로 인해 대정부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융권의 시어머니 역할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CD금리 담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부거래과를 신설해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금융권 감시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될 예정이어서 금융회사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을 감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적과 수익성 악화는 심해지는데, 금융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1인당 부채 5818만원
가난해지는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부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금융부채 보유 10가구 중 7가구는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919만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93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도 66.9%로 전년대비 1.8%포인트 늘었다. 부채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2%로 전년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8.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이재영기자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이 앞장서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5천만을 웃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평생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스케일링, 노인틀니 건강보험 혜택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건강서비스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께 찾아갑니다
가벼운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등 나눔경영 실천

<축구게임>

'풋볼데이' 새 얼굴에 송종국

24일부터 플레이 가능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현 MBC 해설위원인 송종국(35·사진 왼쪽)이 2년 만에 축구공을 들었다.

송종국은 18일 NHN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축구게임 '풋볼데이'를 알리기 위해 이날 게임 출시 행사장인 서울 신사동 엠큐브를 찾았다.

송종국은 "운동할 때는 영하 10도는 돼야 추웠는데 이젠 0도만 돼도 으스스하다"며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딸 지아와 함께 출연하며 쌓은 예능감을 발휘했다.

그는 스포츠 채널에서 축구를 다루는 정인영 아나운서와 함께 풋볼데이 홍보 모델로 뛰고 있다.

송종국은 "게임 내에서는 구단주, 선수, 감독 등 원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살 수 있는 구단주가 가장 마음에 든다. (구단주인 모습이) 나중에 현실로 다가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웹시뮬레이션게임인 '풋볼데이'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해외 유명 리그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의 박지성을 나만의 선수로 기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축구게임 최초로 독일 분데스리가 전 구단의 선수를 만날 수 있다. 신작은 24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박상훈기자

VOD 보면 시청률 보여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보는 인구 늘어 ·새로운 바로미터 작용

주문형 비디오(VOD) 순위가 '제2의 시청률'로 떠오르고 있다.

TV 중심의 동영상 플랫폼이 PC, 모바일로 확장하면서 시청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VOD 순위가 새로운 바로미터로 인정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목드라마의 시청률과 VOD 순위는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률 조사기관 TNmS가 지난 7일 방영된 KBS2 '비밀', MBC '메디컬 탑팀', SBS '상속자들'의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상속자들'이 14.3%를 기록하며 13.4%의 '비밀'과 4.7%의 '메디컬 탑팀'을 앞섰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 TV 방송사 씨앤앰이 19일 메트로신문에 공개한 VOD 순위 자료도 비슷한 결과를 담고 있다.

'상속자들'이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연속으로 전체 TV VOD 순위에서 2위를 달리다가 10월 마지막 주 1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도 1위를 지켰다.

반면 '비밀'은 4주 연속 3위에 랭크됐다. '메디컬 탑팀'은 10월 셋째 주 7위를 기록하며 첫 톱 10에 들었지만 15위로 하락한 넷째 주 이후 톱 10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실제 시청률 순위와 VOD 구매 순위가 일치하는 것이다.

tvN의 '응답하라 1994'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임에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셋째 주 18위로 순위권에 첫 진입한 뒤 넷째 주에 4위를 기록하며 톱 10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 순위에서는 3위 '비밀'과의 간격을 좁히더니 11월 첫째 주 순위에서 2위로 올라서며 VOD 순위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VOD 순위가 드라마의 성공 여부를 재는 기준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가 첫손에 꼽힌다.

특히 주거비 상승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하철과 버스에서 드라마를 보는 이들이 덩달아 증가했다.

게다가 네이버 등의 포털은 물론 케이블 TV 업체에서 'HD 화질 4~8개속 시청'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 것도 효용을 얻고 있다. 월 1만원 정도를 내면 무제한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전통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준비하세요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보인 19일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의 한 크리스마스용품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구경하며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자기소개서' 위장 악성코드 주의보

'자기소개서'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랩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배포 시도가 발견됐다고 19일 보안 패치 적용을 당부했다.

발견된 악성파일은 '자기소개서'라는 파일명으로 국내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유포됐다. 사용자가 e메일에 첨부된 문서파일을 실행하면 PC에 몰래 악성코드를 설치한다.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파일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프로그램 파일로 확장자가 hwp, doc, docx, xls, xlsx로 돼 있다.

/서규광기자 kmkoo@

10대 그룹 시간선택제 근로자 1만명 뽑는다

삼성과 LG는 물론 롯데와 신세계 등 국내 10개 주요 그룹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1만 명을 채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코엑스 3층 C홀에서 10개 그룹 8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참가 기업들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년층 등 경력직을 뽑으며 채용 설명, 원서 접수, 현장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28개 기업에서는 현장 면접을 통해 3500명을 선발한다.

채용 확정 시기는 대개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말까지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먼저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 20개 계열사가 참여해 2년 계약직 6000명을 채용한다. 고용 조건은 하루 4~6시간(오전 또는 오후 선택)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개별 회사와 직무 등에 따라 책정된다. 채용 직종은 연구개발지원 분야(소프트웨어 및 제품 개발 등), 특수 전문 분야(통·번역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환경 안전, 사무·서비스, 생산지원 분야 등으로 나뉜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등 6개 기업에서 캐셔, 판매, 상담원 등 1006명을, CJ그룹은 11개 계열사가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등 509명을 뽑는다.

LG그룹도 14개 기업이 406명을, 한진그룹은 대한항공·한국공항 등 7곳에서 객실승무원, 탑승 수속·안내 직원과 리무진 운전기사 등 400명을 채용한다.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해 점포 및 매장 관리, 안내·상담직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1034명을 뽑는다.

이 밖에 한화그룹 150명, 신한은행 200명, GS그룹 110명, SK그룹 100명 규모로 채용이 진행된다.

/양성원기자 ymw@

기는 RAV4 나는 싼타페

올해 출시된 신차 성적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올해 데뷔한 신차들의 실적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히트한 모델이 많은 메이커도 있고 '쪽박'만 찬 메이커도 상당수다.

현대차는 3월에 맥스크루즈를 내놓으며 신차 행진을 시작했다. 신형 싼타페의 롱 보디 버전인 맥스크루즈는 럭셔리 SUV 고객들을 사로잡으며 올해 3~10월에 6474대나 팔렸다. 신형 싼타페 역시 전년도 동기보다 30.7%포인트나 늘었다. 5월에 마이너 체인지된 투싼ix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늘어났다. 이와 달리 4월 선보인 아반떼 쿠페는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3%포인트나 줄었다.

기아차는 뉴 스포티지R을 7월에 출시했는데 10월까지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최근에는 다시 판매가 늘고 있다.

한국GM은 2월에 소형 SUV 트랙스를 내놨다. 기존 SUV보다 작은 차체에 1.4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은 트랙스는 10월까지 6374대가 판매됐다. 경쟁차에 비해 많지 않지만 한국GM의 판매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됐다.

르노삼성은 다운사이징 모델인 SM5 TCE 모델을 5월부터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내수에서 전년 대비 3.2%포인트 감소했으나 SM5는 신모델 덕에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쌍용차는 지난 2월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해 올해 10월까지 8725대나 판매했다. 바뀐 디자인과 오토캠핑 붐을 탄 것이 히트 비결이었다.

미니는 2월에 7번째 파생 차종인 페이스맨을 출시했다. 10월까지 전체 판매량은 185대로, 다른 미니 모델들에 비해 부진했다. 특히 큰 반향을 얻었던 컨트리맨에 비해 판매량이 많이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폭스바겐은 서울모터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소형차 '폴로'를 4월부터 판매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폴로는 10월까지 1185대나 팔리면서 2000만원 중반 수입차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토요타는 뉴 RAV4를 5월에 내놨다. 10월까지 527대가 팔려 기대에 못 미쳤다. 토요타는 주요 모델의 판매 부진이 겹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3%포인트나 감소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상위권 업체 중 토요타가 유일하다.

BMW는 3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6월부터 출시했으나, 10월까지 303대가 팔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탐사대기자 tamsa58@metroseoul.co.kr

3가지 맛 다크초콜릿 '브룩사이드' 19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허쉬코리아의 '브룩사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브룩사이드는 베리류를 젤리로 만들어 다크초콜릿으로 감싼 제품으로 아사이 블루베리, 석류, 고지 라즈베리 3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이 무료

왕십리 '텐즈힐' 잔여세대 분양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 '텐즈힐'이 신어 올림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특별 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시공했으며 지상 최고 25층, 21개 동, 전용면적 59~148㎡, 전체 1702가구 규모다.

현재 일부 세대에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을 적용 중이며 전용면적 129㎡ 이상 주택형에는 할인 및 계약조건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사비 지원 등의 다양한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2호선 신설동역, 2·6호선 신당역 등과 인접하고, 2·5호선 및 중앙선 분당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이 좋아 도심권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해 이마트, CGV,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를 이용할 수 있고 동대문 쇼핑 상권도 인근에 있다. 성동구청, 한양대병원, 청계천 등도 가깝다. 뉴타운 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 1곳씩이 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왕십리뉴타운 텐즈힐 모델하우스에서는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대교 소빅스와 협력해 텐즈힐 문화교실이 개최된다. 총 6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매 기수별 선착순 10명을 선발해 6~8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분양 문의 02)777-7772

/이산옥기자

쑥쑥 크는 모바일 쇼핑시장

스마트폰 가입 증가에 올해 1조3000억원 전망 지난해보다 두배나 증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000만여 명을 넘어서고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전체 67%가량을 차지하면서 모바일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올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쇼핑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모바일 결제는 물론 쉽고 간편하게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본죽에 따르면 지난 동지 시즌과 올해 삼복 시즌 각 2주간의 한정된 기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이 2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죠스떡볶이도 지난 8월 한 달간 KT '기프티쇼'와 SK '기프티콘'에서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이 2억1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세븐일레븐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지난해 동기 대비 118% 급증했다. G마켓에서는 최근 한 달여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135%) 증가했다.

선물하기 메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경우 연 간에 매출이 약 300억이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외식 브랜드 매출이 15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아웃백스테이크가 지난 12월 외식업계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 금액권이 편리한 선물 가능과 사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영일기자

고춧가루 최대 30% 할인… 알뜰하게 김장하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는 알뜰한 김장 준비를 위한 할인 기획전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김장 재료는 물론이고 각종 용품들까지 다양한 구성의 기획전들을 꼼꼼히 체크하면 보다 경제적인 김장 준비를 마칠 수 있다.

대상FNF 종가집은 '김장대전'을 정원e샵에서 열고 있다. 12월 31일까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다양한 김장용 재료를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따라 최대 26%의 가격 할인 이외에 무료 배송, 최대 10% 적립금 혜택과 선착순으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김장 재료를 시세 대비 최대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 가을 배추 주산지인 전남 무안, 영광 등에서 산지 직송 방식으로 상품을 조달했고 고춧가루의 경우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부터 3주간 배추, 무, 고춧가루 등 13개 핵심 김장 재료 가격을 대형마트 평균보다 23.6% 낮춰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지역별로 나눠 수도권, 충청권은 지난 14일부터, 호남권은 21일부터, 영남권은 28일부터 김장 재료 할인 행사를 벌인다. 대표 품목인 통큰 절임 배추(10kg, 국내산)는 1만6000원에 판매하여 3박스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준다.

/황재용기자

'햇와인' 보졸레누보 맛보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21일부터 올해 수확한 포도로 담근 와인인 '조르주 뒤뵈프 보졸레 누보'를 판매한다. 보졸레 누보는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메' 품종으로 4~5주의 짧은 숙성 기간을 거쳐 만드는 햇와인을 의미한다. 20일까지 예약하면 정상가(4만2000원) 대비 30% 이상 할인된 2만9000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9개 중소의류사 뭉쳤더니 '고속성장'

롯데몰에 오픈한 동대문 편집매장 '피트인' 월 매출 4억원 돌파

동대문을 터전으로 영업을 해 오던 9개 패션·잡화 브랜드가 협업을 통해 문을 연 패션 편집숍이 오픈 한 달 만에 자리를 잡아가며 오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류업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지난달 18일 롯데몰 김포공항에 문을 연 동대문 패션 편집매장 '피트인(FITTIN)' 숍. 이곳은 선보인 지 한 달 만에 높은 인기를 끌며 토종 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장은 '롯데몰 김포공항'과 '동대문 패션몰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GF(지하 2층)에 위치한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 'H&M'과 마주하고 있는데도 오픈 한 달 매출 4억원을 돌파하며 동대문 패션 브랜드의 저력을 발휘했다. 이곳에 입점한 여성 캐주얼 브랜드 '피그먼트'는 평 효율 1000만원대를 기록해 롯데몰 김포공항 쇼핑몰 전체 평 효율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모던 여자옷의 '다이앤반'도 평 효율 400만원대를 기록하며 입점 매장 전체적으로 높은 성적을 보였다.

롯데몰 김포공항에 문을 연 동대문 패션 편집매장 '피트인(FITIN)' 숍 전경 /롯데자산개발 제공

이런 성과에는 토종 패션 브랜드의 단결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주로 소형 점포가 많은 동대문 패션 브랜드의 특성상 단일 브랜드가 아닌 다수의 인기 브랜드가 한데 어우러져 다양성과 패션성을 고루 갖췄다.

특히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 간의 결합을 통해 선보인 숍인숍 콘셉트가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복합쇼핑몰과 동대문 패션몰의 접목으로 롯데몰 김포공항은 강서 상권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토종 SPA 매장을 대거 선보이게 됐고, 동대문 패션 브랜드는 유통망 확장과 함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얻었다.

동대문 브랜드 특유의 상품 경쟁력과 롯데몰 김포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이 만나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 이외에 ▲스피드 ▲디자인 ▲합리적 가격을 지향하는 동대문 특유의 패션 문화가 조화를 이뤄 쇼핑 환경은 물론 트렌드를 중시하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이다. 실제로 '피트인(FITIN)' 숍은 하루 단위로 신상품을 쏟아내는 빠른 제품 회전율과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선보여 재방문 소비자가 30% 이상 달하는 등 오픈 한 달 만에 인기 매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유통망을 넓히려는 동대문 브랜드의 입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롯데자산개발 관계자는 귀띔했다.

롯데몰 김포공항과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은 동대문 유망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국판 유니클로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본력과 유통 경험이 부족한 신예 브랜드에 입점 기회를 제공해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입점 브랜드 중 높은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는 추후 단독 매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현기자 ymi@metroseoul.co.kr

타임 3종 ○○ 담아 리뉴얼

KT&G가 '타임(Time)' 3종을 공감시인으로 알려진 하상욱씨의 단편시를 담아 새롭게 리뉴얼했다. 리뉴얼되는 제품은 '타임리스 임' '타임리스 타임 미드' '레임'이다. 각 제품에는 하상욱 시인의 단편시를 패키지 전·후면에 배치해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 그의 시집 '서울시'는 SNS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은 기존과 같은 갑당 2300원.

1분 야근해도 수당주는 회사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④ 에프알엘코리아

유니클로 운영…직원 4300명
능력 있으면 6개월만에 점장
여성 관리자 비율 절반 넘어요

"소위 스펙이 부족해도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입사 6개월 만에도 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명동중앙점 등 수십 곳의 점포에서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 점장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UNIQLO) 브랜드로 유명한 에프알엘코리아의 조은정 인사팀장은 회사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꼽았다. '완전실력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채용은 물론 인사도 철저히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실력을 인정받은 직원은 매년 두 차례 자격시험을 통해 승진 기회를 얻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승진이 빠르다. 이 덕분에 직원 구성도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다.

4300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고졸·전문대졸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자 비율이 55%나 된다. 게다가 전국 61개 매장에서 75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의무고용률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에프알엘코리아의 독특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출퇴근을 1분 단위로 관리하면서 1분이라도 잔업이나 야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잔업·야근의 책임을 팀장이 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는 거의 없다.

에프알엘코리아 직원들이 사내에 설치된 '땡큐카드' 판에 칭찬하고 싶은 사연을 남기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그렇다고 근무 시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긴 것도 아니다. 매장은 여건에 따라 교대 근무를 하고 본사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다.

연봉도 다른 의류업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3200만원(대졸 초임)이다. 이익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결산상여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조 휴가, 사내 동호회 어학교육비 지원, 장기근속 포상, 목표 달성 포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2004년 전 세계적인 '패스트'패션 열풍을 일으킨 패스트리테일링 그룹과 롯데쇼핑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덕분에 재무구조도 탄탄하다.

전국 79개 매장에서 지난해 올린 매출은 5500억원, 영업이익은 705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매장 수가 112개로 늘어나 경영 성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까지 대졸 신입사원 공채

에프알엘코리아는 22일까지 홈페이지(recruit.uniqlo.co.kr)를 통해 유니클로 점장 후보를 희망하는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이상이거나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남성)을 마친 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스펙보다 열정… 오지랖 넓으면 우대받아

"점장자가 된다는 큰 꿈을 가진 구직자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조은정(사진) 인사팀장은 에프알엘코리아에 입사하면 대기업에서는 맛보기 힘든 장사의 즐거움을 진지하게 배울 수 있다며 완전실력주의에 공감하는 많은 구직자들의 지원을 희망했다.

-인사제도가 매우 독특하다.

▶신입사원 모두를 점장 후보로 생각하고 교육한다.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정규직 사원은 최단기간인 6개월 만에도 점장이 될 수 있다. 점장이 되지 못한 직원들도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에프알엘코리아의 큰 장점이다.

-회사 분위기도 다른 기업과는 다르다.

▶직원 평균 연령이 24.8세일 정도로 매우 젊다. 명동 본사에서는 입사 1년차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를 할 정도로 의사 결정도 매우 빠르다. 다른 회사에서 '오지랖이 넓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점도 색다른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된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기존의 스펙 쌓기에서 벗어난 채용 방침에 공감하는 구직자들을 선호한다. 스펙보다는 무모할 정도로 큰 꿈을 지니고 입사 열정을 보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된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① 스피치 트레이닝

복식호흡으로 발성 바꾼다

누구나 말을 할 줄 알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가오는 연말, 각종 회의와 송년회 모임으로 어느 때보다 말할 기회가 많아졌다. 사회생활에서 말솜씨는 남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법. 직장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기자가 직접 스피치트레이닝에 뛰어들었다. 연재가 끝나는 새해에는 모두 스피치 고수가 되어있기를 기대해본다.

"지금 쓰고 있는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스피치 수업을 위해 찾은 W스피치 학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쓰는 목소리는 어디까지 가짜란 말인가. 이는 잘못된 발성으로 성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연예인 아무개의 중저음 목소리가 멋져 보여 일부러 목소리를 내리 까는 남성, 애교 섞인 목소리를 위해 비음을 섞는 여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평상시 가성을 내다 보면 성대가 스트레스를 받아 목이 따갑거나 바람 섞인 목소리가 날 수 있다.

편안한 발성을 위해 자신의 성대를 찾아야 한다. 침을 꿀꺽 삼키면 움직이는 목의 중앙 부분이 성대 위치다. 안정적인 스피치는 [illegible] '배 힘'에서 나온다. 성대를 찾았다면 복식호흡을 시도한다. 먼저 입을 다문 채 코로만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마실 때 어깨가 들썩이지 않고 배만 볼록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배에 공기가 가득 찬 느낌이 들면 입을 살짝 열고 '아~' 소리를 내본다. 이때 성대에 손을 갖다대고 떨림을 기억한다. 이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성대가 올라가고, 목소리를 낮추면 성대도 내려간다. 중간 목소리를 낼 때의 성대 위치가 평소 목소리를 낼 때 가장 편안한 자세다. 고음 또는 저음으로 목소리를 꾸몄다면 이제부터는 본연의 성대 울림과 복식호흡으로 발성을 바꿔보자. 2회에서는 신뢰감 주는 목소리 훈련법을 소개한다. /unique@

전업주부 탈출 워킹맘 돼볼까

전업주부 탈출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 열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하고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후원하는 '2013 워킹맘 엑스포'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 D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나눔·미래·새롬·비상·도약이라는 총 5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나눔관에서는 육아·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정부의 여성일자리 정책,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관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 진단 및 적성검사가 이뤄진다. 비상과 도약관에서는 경력직 채용 기업 및 정보, 헤드헌팅을 통한 구직 정보가 마련된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을 위해 새롬관에서는 1인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등의 창업 솔루션을 소개한다.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메이크업 컨설팅, 이력서 컨설팅, 심리적성 검사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킹맘 엑스포 홈페이지(www.workingmomexpo.com)를 참조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정맥순환장애 조심하세요

동국제약은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정 발매 1주년을 맞아 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맥순환장애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델들이 정맥순환장애 예방 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휴넷, 공부하는 직장인 맞춤교육

2014년 '말의 해'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 보면 어떨까.

온라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부지런한 샐러던트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19일 공개했다.

승진, 연봉, 팀장 리더십, 통찰력, 영어 등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주제어들을 조사해 '연봉 인상', '리더십 성과', '통찰력 인문학', '모바일-경제적 학습' 등 4개 분야로 나눠진 것이 특징이다.

휴넷은 이달 말까지 이번 추천 과정을 수강 신청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미니스피커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국명기자

방사능 제로 '알래스카 연어'
조미료 제로 '아빠가 만든 김'

깐깐한 엄마도 믿고 먹여요

식품업계 인전먹거리 경쟁

초등학생 아들과 10개월 된 딸을 둔 주부 이지은(35)씨. 한 달 전만 해도 집 앞 마트에서 맘편하게 장을 보며 식탁을 꾸렸지만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는 장을 보는 일도 큰 '일'이 되어 버렸다.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급증은 물론 식품 안전과 화학 첨가물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면서 가족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엄마들의 수고와 걱정을 대신 덜어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업계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선보인 '알래스카 연어'는 청정해역 알래스카에서 잡은 100% 자연산 연어를 캔으로 담은 제품이다. 담백한 연어의 맛과 덩어리째 부드럽게 씹히는 느낌까지 그대로 살렸으며 자연산 연어 고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것은 물론 자연산 연어 정제수, 대두유, 정제소금 등 딱 4가지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심플푸드로 정직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파리바게뜨의 '무(無)설탕 식빵'도 인기이다. 파리바게뜨만의 특수 공법으로 설탕 없이 발효해 설탕은 물론 일체의 당을 사용하지 않아 온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뉴비에빵에 탁월한 현미와 동맥경화에 효과가 좋은 호두를 넣어 건강과 담백하고 고소한 식빵 본연의 풍미를 살렸다.

한양에프앤비에서 출시된 '베베푸드 아빠가 만든 김'은 재료의 원산지와 합성조미료 무첨가 및 HACCP인증 등으로 최근 깐깐해진 안목에 부합하는 영유아 전용 김이다.

각종 화학 첨가물들을 뺀 제품들도 찾을 수 있다.

무첨가 빵의 원조 격인 프레시안 '더(The) 건강한 빵'은 합성아질산나트륨, 합성착향료, 합성보존료, 에리소르빈산나트륨, 전분 등 5가지 식품 첨가물을 뺀 제품이다. 대신 셀러리에서 추출한 식물소재 성분을 이용해 햄 고유의 맛과 식감을 살렸다.

/정영일기자 ryme@metroseoul.co.kr

이탈리안 뷔페+메인요리가 3만5000원

서울로얄호텔 연말 특선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로얄호텔은 카페&다이닝 베르자뮤이 연말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품격 높은 서비스와 엄선된 요리로 구성된 '세미뷔페 & 앙트레 특선 메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볼로냐식 라자냐·피자·가리비 카르파치오 등 15가지로 구성된 세미 뷔페와 함께 이탈리안 음식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파스타 요리, 매콤한 소스로 맛을 낸 디아블로 치킨, 신선한 생선을 엄선해 그릴에 구운 생선요리, 최상의 한우를 이용한 등심과 안심스테이크 등의 메인요리를 맛볼 수 있다.

가격은 세금포함 3만5000원~5만5000원이며 영업시간은 오후 5시30분~7시30분, 오후8시~10시까지다.

또 호텔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X-Mas 디너 스페셜 메뉴'도 준비한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A 세계 3대 진미와 최상의 한우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S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스페셜S 메뉴 주문 시에는 칵테일 1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가격은 스페셜A 7만7000원, 스페셜S는 9만9000원이다. 문의 02)2129-5806~7

/황재용기자

와~ 속 보이니 탐나네!

푸마 '구스다운 재킷' 인기

올겨울 북극한파가 예고되면서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구스다운' 패션 아이템이 인기다.

푸마의 속 보이는 '투명 구스다운 재킷'은 화려한 염색된 충전재와 비치는 겉감을 사용해 충전재 컬러가 옷감의 색처럼 보이는 신개념 점퍼다.

충전재로 800 필파워의 최고급 솜털과 깃털을 9대 1 비율로 적용해 따뜻하며 소수성(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성질) 다운을 써 방수 효과가 뛰어나다. 블루, 오렌지, 퍼플 등 세 가지 색상이 있으며 가격은 39만9000원.

노스페이스의 '다운부츠 시리즈'는 700 필파워의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를 부츠 안에 넣어 보온성을 높였다. 특히 탄성이 우수한 고무 소재 중창을 사용해 눈길에서도 신발이 젖지 않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프컷다운부츠 '부띠 3K'와 상단을 털로 장식한 '부띠 2FUR', 종아리 전체를 감싸는 '부띠 써미 커프'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0만5000~14만원.

/박지원기자

비비 올리비아' 겨울 컬렉션

골프 및 아웃도어 브랜드 비비 올리비아가 19일 이번 겨울 컬렉션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야외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룩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로얄앤컴퍼니 28일 '핸드드립 커피 체험교실'

욕실문화 기업 로얄&컴퍼니가 28일 핸드드립 체험 '클래스'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핸드드립을 직접 체험해보고 커피의 풍미를 완성해주는 에어로프레소, 사이펀 추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추출 방식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클래스는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로얄'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재료비를 포함해 2만원이다.

로얄 아카데미의 강좌는 ▲신개념 미술 이론을 전문가에게 배워보는 로얄 아트 ▲신축 욕실 인테리어 등을 배워보는 로얄 인테리어 ▲독서 사진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로얄 컬처 등 총 3개 분야로 나뉘어 열린다.

문의 blog.naver.com/royal_story·070-7464-6400

트리 불 밝히면 행운권 추첨 시간

그랜드힐튼서울 29일 점등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 힐튼 서울은 오는 29일 연말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를 진행한다.

연중 행사로 개최되는 점등식 당일에는 호텔 로비에서 대형 슈톨렌 빵과 따뜻한 와인인 뱅쇼가 준비되며 7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에이트리움 카페에서는 보육원 출신원에서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임직원들이 캐럴을 부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파한다. 또 카운트다운 후 트리가 점등되면 임직원, 방문객들이 연말을 축하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게 된다.

이와 함께 호텔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5시 30분에 고객 감사의 일환으로 행운권 추첨을 진행해 푸짐한 경품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볼펜 리필 무료증정 행사

BIC의 미국 만년필 브랜드 쉐퍼는 센티널 시그니처 볼펜 론칭 기념으로 볼펜 심 리필을 증정하는 행사를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한다.

센티널 시그니처는 기하학무늬, 체크무늬 등 새로운 패턴에 화이트·실버·블랙·골드 등 고급스러운 색상을 더한 센티널 프리미엄 볼펜라인이다.

쉐퍼오프라인 매장은 교보핫트랙스(광화문, 영풍문고, 이대노점) 등에 입점돼 있으며, 로라비전·이네이션 등 온라인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인공관절 무료수술 선물

저소득층 관절염 환자 후원 나선 엄홍길 휴먼재단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 계층에게 새삶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무릎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으로 말기에 이르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무릎이 붓고 심하면 다리가 O자형으로 휘기도 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수술비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말기로 접어들면 약물이나 주사요법도 효과가 없어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해 주는 수술로 수술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수술을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비용은 250만~300만원이며 양쪽 무릎을 모두 받으면 5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입원비와 간병비, 수술 전후의 검사비 등이 추가된다. 즉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600만~7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비용은 2배가 된다.

이런 연유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수술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후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휴먼재단의 엄홍길 상임이사는 "이번 캠페인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5540(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게시판을 통해 신청

김장철만 되면 "아이고 무릎아" 엄마의 하소연

주부들 하루종일 쪼그리고 있다보면 '연골연화증' 발병

식탁 등 높은 곳 이용하고 30분에 한 번은 휴식 필요

갑작스러운 추위가 시작되면서 주부들이 김장을 서두르고 있는데 김장과 함께 무릎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만 했다하면 무릎이 아파 며칠 동안 고생하는 주부들이 많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김장 양념을 버무린 후 속을 골라내는 모든 과정 대부분이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 무릎의 연골이 손상되고 말랑말랑해지면서 점차 파괴되는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 연골연화증은 무릎 앞부분에 강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거나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를 유지했을 때 발병하기 쉬우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김장을 할 때는 식탁과 같은 높은 곳을 이용하거나 보조의자를 사용해 무릎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도 좋다. 또 김장 중간중간 관절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최소한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 허리와 무릎을 펴고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김장 후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연골연화증을 진단받으면 비수술적 요법인 체외충격파나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법은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하는 치료법이며 주사치료는 퇴행성 질환에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큰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은 재어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통증을 줄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서운경 구리튼튼병원 원장은 "김장을 마친 뒤 병원을 찾는 중장년 여성들이 많다. 온종일 쪼그려 앉아있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관절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김장 후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기 불편하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이른둥이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희망찾기 토크콘서트 열려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른둥이에게 희망을 전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지난 17일 '세계 미숙아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이른둥이 희망찾기 HUG(Hope yoU Grow) 데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콘서트에서는 이른둥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른둥이 가정에 희망과 응원을 전하고 이른둥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른둥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른둥이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른둥이 부모 대상 설문 결과가 발표됐고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른둥이들의 공연과 이른둥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HUG 사진 촬영 ▲플레이콘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제2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사연 공모전 당선작 시상 및 탤런트 이아현씨의 이른둥이 성장 스토리 낭독, 어려운 이른둥이 가정 기부금 전달식, 아인슈타인처럼 같은 이른둥이 출신의 위인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행사는 행사에 참석한 이른둥이 가족들이 종이비행기에 소원을 적어 다 같이 날리는 퍼날레로 마무리됐다.

25주 만에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하서윤양의 어머니 나은실씨는 "아이에게 미안함을 갖기보다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궁란 대한신생아학회 회장 역시 "이른둥이들은 출생 후 2~3년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른둥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용기자 hsnu@metroseoul.co.kr

12~14세 청소년 칼슘 가장 부족

85.4%가 권장량 못 미쳐

영양 과잉 시대지만 어린이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 섭취가 권장량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소아 청소년 7233명을 관찰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여자아이들은 10명 중 8명(79.1%)가량이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들은 대략 하루에 700~9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지만 한국 어린이들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남아 510mg, 여아 431mg이었다. 또 급성장과 함께 칼슘 요구량이 증가하는 12~14세 청소년 연령층(85.4%)이 칼슘을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1~2세 유아(49.9%)도 절반가량에서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정 교수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내의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이 빠지거나 뼈가 약해지고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식단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새로 나온 책

에세이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마루야마 겐지/바다출판사

은둔 작가 겐지의 독한 인생론. '네가 살아봐서 아는데' 따위의 잔소리나 어르고 달래는 힐링이 아닌 자신이 체득한 인생의 교훈을 그대로 전한다. 저자는 "부모와 사회, 종교, 학교 등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기관리
심플한 정리법
도미니크 로로/흐름출판

베스트셀러 '심플하게 산다'를 쓴 저자가 인생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비법을 담았다. 저자는 정리된 실내, 놀라운 평안,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관계는 행복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리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소설
고독한 밤의 코코아
다나베 세이코/포레

소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로 유명한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12편이 실렸다. 인생이 본밴듯 넘 본 20대 여인들이 심각하게 연애에 달려들었다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좌충우돌의 과정을 그렸다. 작가가 1978년에 낸 소설집이다.

종교
알고 보면 괜찮은
미가/불광출판사

미가 스님이 자신의 아픈 과거사를 통해 깨우친 자비와 삶과 자유의 과정을 들려주고 우리 내면에 자리한 슬픔을 다독인다. 스님은 '자비로워 지는 것'이 궁극의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경제
아웃런
제프 조/한국경제신문사

디자인의 경영 전략을 통한 브랜드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법을 제시한다. 책에서 말하는 디자인적 경영 전략이란 디자인적 사고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주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행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권기왕/상상출판

대한민국 1세대 여행작가 권기왕이 애틀랜타에 살면서 몇 년에 걸쳐 모은 개성 있는 아름다운 사진과 젊은 날의 자유로운 감성이 밴 글을 담았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웅장한 대자연의 숨막히는 사진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인문
불안의 시대
앨런 호위츠/중앙북스

저자는 현대에 범람하는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정의하는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늘어나는 병명과 끝없는 진단에 두려움을 느끼기에 앞서 지금까지 인류가 불안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알면 누구보다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든 날
정호승/책느끼다

장소는 하나의 순간, 하나의 기억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장소는 경험되는 것이자 수많은 기억 속에서 [illegible] 변화한다. 책은 시골집, 시장, 타인의 집 등 여행 그곳에 대한 애틋한 상상과 기억을 담았다.

마광수의 유쾌한 소설 읽기
마광수/책 읽는 귀족

마광수만의 독특하면서도 재미난 명작 소설에 대한 재해석을 담았다. 톨스토이에서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안데르센의 동화와 국내 작가인 박완서의 소설까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명작 소설에 대한 편견을 달콤하고 유쾌하게 뒤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
의사에게 기대지 않고 사는 법
마쓰이 가즈히코/한스미디어

60년을 의사로 살아온 일본의 명의가 현대 의료의 위가 지닌 문제점을 짚어내며 자기 몸은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 의사에게 맡길 것과 의사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알려준다.

/버지원기자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울프 일생 가로지른 단편 45편 한 권에!

'목마와 숙녀' 생각나네

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전집
버지니아 울프/솔출판

혼돈의 소용돌이 같은 세기말에 태어나 두 차례 세계대전의 긴 전란을 겪으며 천재에게 찾아오는 은밀의 가혹함을 받았던 그녀, 버지니아 울프. 영국인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사랑받은 그녀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책은 그녀의 비밀을 푸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1906년 스물네 살 때 처음 쓴 단편 '필리스와 로저먼드'에서부터 죽기 직전 쓴 '배수유장'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남긴 모든 작품을 담아 그녀의 인생 자체를 만날 수 있다. 또 책 속에는 그녀의 죽음 이후 발굴된 미발표 유작 18편과 처녀장편 '출항'(1915년) 발표 이전 시기의 초기 작품 4편도 담겨있어 울프의 문학이 변모해나간 과정과 성과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더욱이 그녀가 말하는 "아주 흔할 만치 소소한 광경"들과 불꽃 등대, 파도 등과 같은 상징적인 어휘들과 함께한 세기 전 페미니즘 문학은 면 그녀의 진면목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다.

독기 벽에 박힌 못 자국, 느린 걸음의 산책, 흐린 날 연못에 비친 그림자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생각과 감정을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묘사해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경험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녀만의 세상은 그저 아름답고 놀라울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냉철하리만큼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일상 속 대상들을 포착해 풍성한 찬미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녀의 비범은 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상상력과 그것이 빚어내는 따스한 온기를 품은,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오래도록 반짝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치열한 불꽃을 만나보자.

/윤가희기자 hesu(38@metroseoul.co.kr

이 주 의 책 가을·겨울~봄~여름으로 오는 정원사의 시계

정원사의 계절은 봄·여름·가을·겨울이 아니라 가을·겨울·봄·여름으로 찾아온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시든 잎과 꽃대를 거두고, 흙을 일구고, 겨울잠에 들어가야 할 식물의 뿌리를 포근히 감싸줘야 한다. 이 가을의 준비 없이는 결코 봄이 오지 않고, 봄이 없으면 수많은 이 무거진 여름도, 풍성한 수확의 가을도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정원의 시작은 식물이 잠들을 잠추고 내년을 준비하는 바로 가을이다.
정원의 발견 (오경아/궁리) 주~
/박지원기자 pjw@

겨울 문턱 데이트 준비 마친 공지영·김진명

인터파크도서 작가와의 만남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도서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작가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공지영 작가와 1일 문학기행

먼저 오는 12월 6일, 공지영 작가와 함께하는 '수도원 문학기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지영 작가의 신작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의 주요 배경지인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으로의 1일 문학기행 행사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이곳은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아 연합회에 속한 하나의 자치 수도원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이북 덕원 수도원과 만주 연길 수도원 수도자들이 1952년 7월에 설립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인터파크도서의 도서 전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북DB' 만남 코너를 통해 댓글로 신청할 수 있다. 총 40명을 선발하며 신청자 본인만 참석이 가능하다.

◆김진명 작가 생활 20주년 만남도

김진명 작가가 충격적인 명성황후 시해의 실제를 그린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출간한 지 13년 만에 소설을 대폭 개작, 인터파크도서 북DB를 통해 '신(新)황태자비 납치사건' 연재를 시작한다. 매주 월~금요일 1회씩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본래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2001년 7월 해냄출판사에서 단행본 두 권으로 출판됐다가 2010년 저작권이 새움출판사로 오면서 큰 내용 수정 없이 한 권의 양장본으로 재편집돼 출간됐다.

김진명씨는 이 소설을 중국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했고, 곧 중국 출판을 앞두고 있다. 연재가 마무리되면 중국에서는 원래의 제목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월 11일, 작가 생활 20주년 기념 '김진명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총 100명을 초대하며 12월 5일까지 북DB 만남 코너를 통해 댓글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이다.

/장병철기자 jumbo@

목소리 힘빼고 따뜻하게 진화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배우서 보컬리스트로 돌아온 이소정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이소정(46)이 4년 만에 새 앨범 '아이 러브 어 피아노'를 내놨다. 한층 성숙해진 보컬리스트로 돌아온 그는 편안하면서도 깊어진 목소리로 뮤지컬과 재즈 명곡들을 한국 팬들에게 들려준다.

이소정은 국내에 뮤지컬배우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뮤지컬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에게 1990년대에 발탁돼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킴 역으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의 목소리를 맡기도 한 그는 한국 뮤지컬 '불의 검', '선덕여왕'에서도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해외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나 세라 브라이트만처럼 뮤지컬배우 출신이면서도 보컬리스트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즈와 스탠더드팝, 클래식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 크고 작은 콘서트 무대에서 쌓은 경험의 결과물이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반주로 뮤지컬 명곡 '지킬 앤 하이드', 재즈 명곡 '오버 더 레인보우', '아이 러브 피아노' 등을 카리스마가 느껴지면서도 부드러운 창법으로 부른다.

"사실 올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은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런 와중에 늘 잊지 않고 사랑해주는 한국 팬들을 위해 대중성을 강조한 이번 앨범을 내게 됐죠. 녹음할 때도 집에 온 듯 마음이 따뜻했어요.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 목소리에 힘을 뺐는데, 노래를 듣는 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앨범 녹음 전 조윤성과 함께 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하며 호흡을 맞췄다. 앨범은 라이브 무대에서 느껴지는 은화함과 즉흥감이 그대로 담겨 마치 1960년대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의 카바레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원래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편인데 음악을 할 때는 더욱 엄격해요. 무대에 오를 때 꼭 전날 공연장에 가서 미리 에너지를 느끼고 오곤 하죠. 이번 앨범을 위해서도 엄청난 연습을 했어요. 해외 공연을 펼친 것은 물론 녹음실에도 몇 달 전부터 가서 마음을 가다듬었죠."

올해로 데뷔 18년째. 최근엔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아마드 자말에게 호평과 지지를 받으며 더 큰 음악적 도약을 하고 있다. 자말은 이소정에게 "지금처럼 아티스트의 색깔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국에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집스럽게 음악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아티스트로서 저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노력을 거장이 알아주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어요."

그는 뮤지컬배우와 보컬리스트 외에도 에세이집을 내고, 아리랑TV의 간판 프로그램 '하트 투 하트'를 2년 넘게 진행하는 등 작가와 MC 타이틀도 지닌 만능 엔터테이너다. 작사가로도 활발히 활동해 '봄날은 간다', '선덕여왕'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 OST 주제곡을 작사하고 노래했다.

14일 개봉한 영화 '더 파이브'의 주제곡도 부른 이소정은 "내후년이면 데뷔 20년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나이만큼 곡 해석력은 깊어진 것 같다"면서 "꾸준히 사랑해준 한국 팬들에게 늘 감사하다. 내년엔 뮤지컬배우로서 국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벨롱엔터테인먼트 디자인/박은지

"

부드러운 창법에 대중성 강조한 새앨범 '아이 러브 피아노' 발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작업
만능엔터테이너로 활약 쭈~욱

착한 예능 '섬마을 쌤' 통할까

외국인 4인방 출연… 샘 해밍턴 "즐겁게 촬영"

'푸른거탑' '꽃보다 할배' 등 신선한 소재로 예능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블 채널 tvN이 '대세' 샘 해밍턴을 앞세워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바로 '착한 예능'을 표방하며 들어온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섬마을 쌤'이다.

19일 첫 방송된 '섬마을 쌤'은 샘 해밍턴, 브래드, 아비가일 알데레테, 샘 오취리 등 외국 연예인 4인방의 섬마을 적응기를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19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샘 해밍턴은 "다른 예능에서 막내였는데 이번엔 선배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다들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막내 샘 오취리에게 먹방 타이틀도 빼앗길 것 같다"며 "인생과 예능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4박5일 동안 섬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낸다.

파라과이 출신 아비가일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섬을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름다운 시골 여행과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파라과이에 바다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샘 오취리는 "가나와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운기자

'섬마을 쌤' 4인방 샘 해밍턴, 샘 오취리, 브래드, 아비가일(왼쪽부터). /CJ E&M 제공

YG엔터 빅뱅 日 돔투어 포문 · 싸이는 美 아티스트와 앨범 작업

'제2 한류 열풍' 이끈다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아시아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제2의 한류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룹 빅뱅(사진)은 해외 가수 최초로 일본 6대 돔 투어에 나서며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6일 사이타마 세이부 돔에서 6대 돔 투어의 시작을 알린 빅뱅은 이후 현지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빅뱅 77만 명 환호하는 투어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고, 닛칸스포츠 역시 빅뱅이 돔 투어를 통해 총 77만 명을 동원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14~24일 시드니 전역에서 열리는 시드니 국제영화제의 홍보대사에 위촉된 만능 엔터테이너 구혜선은 개막식에서 단아한 개량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구혜선이 이날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입은 청록색 개량한복은 미스지컬렉션 대표이자 국내 톱 패션 디자이너 지춘희의 작품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수묵화로 새겨져 있어 더욱 단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2NE1은 21일 신곡 '그리워해요'를 공개하고 내년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전 세계로 활동을 이어간다.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만든 싸이도 미국 아티스트들과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싸이의 새 앨범 소식은 빌보드와 싸이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싸이는 빌보드 인터뷰를 통해 "운들이 빠르면 11월 초 새 앨범을 만날 수 있다"며 "이번 앨범 수록곡들은 수많은 미국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했다"고 전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 '젠틀맨'에 이어 또다시 돌풍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병호기자 solo@metroseoul.co.kr

star bag

콘서트 티켓 3분만에 매진

4인조 밴드 딕펑스가 연말 공연 티켓을 매진시켰다.

19일 소속사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블루스퀘어에서 열리는 연말 공연 '딕펑스 2013 진짜 마지막 콘서트 – 찍지 말고 뛰어'의 티켓 3000장이 전날 오픈되자마자 3분 만에 다 팔렸다. 엠넷 '슈퍼스타K 4' 준우승 출신인 이들은 5월 단독콘서트 '딕펑스쇼'를 시작으로 8월 '베러 딕펑스', 10월 앙코르 콘서트 '생유 베리 딕펑스' 등 매 콘서트마다 매진 행렬을 기록한 바 있다.

그의 전 매니저 항소장 제출

고 박용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사망한 박용하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그의 유품을 훔친 혐의로 15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 매니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언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고 어린이에 1000만원

배우 이보영이 홍고만주공화국(DR콩고)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일 "유니세프 특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영이 DR콩고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시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1000만원을 어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보영이 지난달 12~18일 DR콩고를 방문한 일이 계기가 됐다.

'유재하 가요제'에 기부

가수 로이킴이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로이킴 측 관계자는 19일 "로이킴이 지난해 '슈퍼스타K 4'에서 받은 우승 상금 일부를 24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열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지난 7월 말 기부했다"고 밝혔다.

'슈퍼스타K 4' 우승을 통해 상금 5억원 중 음반제작비 2억원을 제외하고 3억원을 받은 로이킴은 그동안 한국 컴패션, 굿네이버스 등 20여 곳에 기부해왔다.

PHOTO

'응사' 촌놈들의 화려한 변신 tvN '응답하라 1994'의 하숙집 식구들이 클래식 연주자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다. 이들은 보그 코리아 12월호 화보에서 드라마 속 모습과 180도 다른 세련된 의상과 헤어스타일로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 컨트리 스타일이 익숙하네요. /유순호기자 suno@

'남장여자' 박한별

일일극 '잘 키운 딸 하나'에서 데뷔 11년만에 쇼트커트 파격

배우 박한별(사진)이 SBS 새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를 위해 데뷔 11년 만에 파격 변신했다.

박한별은 '잘 키운 딸 하나'에서 200년 넘게 이어온 가업 황소간장을 물려받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들로 위장해 성장한 장하나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장하나의 또 다른 이름인 장은성으로의 삶을 그려내기 위해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른 박한별은 일대 학교를 평정한 미소년 얼짱 고딩 장은성으로 완벽 변신했다.

첫 촬영 당일이 생일이었던 박한별은 "'잘 키운 딸 하나'의 장하나 역을 맡은 것이 올해 생일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며 오랜만의 안방극장 복귀를 앞둔 설렘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수백 년간 간장을 만들어온 가문에서 태어난 넷째 딸이 형편 때문에 남장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잘 키운 딸 하나'는 '못난이 주의보' 후속으로 다음달 2일 첫 방송된다.

/장병호기자

<고 노무현 미행전>

"그분에 누 끼칠까 겁났다"

'변호인' 송강호 "정치적 해석 자제해 달라"

영화 '변호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맡은 송강호가 정치적인 해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그는 "'변호인'은 정치적인 논란이나 잣대로 평가받을 작품이 아니다. 단지 19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상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대중적인 영화일 뿐"이라고 정치적인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섭외를 한 번 거절했었다. 어쨌든 돌아가신 그분(노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고,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 겁이 났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다"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해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영화는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고졸의 세무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인권변호사로 변신하고 정치와 사회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다. 송강호를 비롯해 김영애·오달수·곽도원·임시완 등이 출연한다. 다음달 19일 개봉. /탁진현기자

송강호가 19일 열린 영화 '변호인' 제작보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촘촘한 구성, 쏠쏠한 재미

film review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할리우드 판타지 대작 '헝거게임' 시리즈 2탄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는 전편인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제작비 만큼이나 더욱 정교해진 내용과 볼거리를 자랑한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3650만 부가 팔린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 시리즈는 독재국가 판엠에서 주인공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13개 구역에서 온 23명의 참가자들과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리얼리티쇼 '헝거게임'에 참가해 벌이는 이야기다.

후속편은 전편에서 헝거게임 우승으로 혁명의 상징이 된 캣니스를 없애기 위한 판엠의 음모로 역대 우승자들을 모은 헝거게임이 개최되면서 캣니스가 절대 권력에 맞서 모두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시리즈의 장르는 판타지지만 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헝거게임을 매개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후속편은 전편에서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이 같은 설정들을 촘촘한 구성으로 풀어내 주제 의식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헝거게임에 반기를 드는 가난한 서민들과 13구역 참가자, 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면서도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판엠 지배자의 모습 등이 '반지의 제왕'이나 '트와일라잇' 등 다른 오락용 판타지 시리즈와는 궤를 확실히 달리한다.

주제 의식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재미가 반감되지는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야기는 여전히 긴장감을 자아낸다. 특수 효과도 더욱 정교해졌고, 캣니스의 의상도 한층 화려해져 볼거리가 쏠쏠하다.

캣니스를 연기한 로렌스의 연기도 성숙해졌다. 전편을 통해 연인리나 졸리를 잇는 할리우드 여전사로 떠오른 그는 거친 액션 연기는 물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혁명의 상징이 돼가며 혼란스러워하는 감정 연기도 섬세하게 스크린에 펼쳐냈다.

전 세계에서 7억 달러 흥행 수익을 돌파한 전편이 국내에서는 고작 60만 관객 동원에 그친 바 있어 후속편이 한국 관객의 정서에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15세 관람가. 21일 개봉.

화끈하고 짜릿한 '카운트다운 콘서트'

박재범·노라조 등 줄줄이 출연 ··· 내달 31일 영등포서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연말 공연가에 카운트다운 콘서트가 주목받고 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을 동시에 즐기는 진정한 연말 콘서트로 해마다 공연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카운트다운 서울 2014'가 다음달 31일 오후 10시30분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에서 열린다. 최근 공개된 1차 라인업의 첫 주자는 박재범으로, 강렬한 힙합부터 감미로운 R&B 발라드, 댄스,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계의 숨은 강자인 노라조도 무대에 오른다.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하고 돌아온 노라조는 엽기적인 코믹 퍼포먼스는 물론 수준 높은 록으로 관객들과 광란의 밤을 보낼 계획이다.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개성 넘치는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정준영도 1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CJ E&M 페스티벌사업팀 관계자는 "페스티벌 문화가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도 늘고 있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라인업을 꾸몄다. 연말의 들뜬 기분과 트렌디한 문화를 만끽하고 싶은 관객에게 적합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트다운 서울 2014'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되며 카운트다운에 이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유리 천장에서 수천 개의 풍선이 떨어지는 퍼포먼스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

◆3색 매력 '힐링 킬링 나이트'

힙합 듀오 리쌍와 실력파 보컬 그룹 센탐, 가수 얼랙이 꾸민 '2013 힐링 킬링 나이트'는 다음달 31일 오후 8시 세종대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공연기획사는 "세 팀의 가수가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며 "공연 제목처럼 잠들었던 일들을 털어내듯 신나는 힙합의 음악으로 킬링의 시간을, 새해에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며 감미로운 발라드를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노라조, 박재범, 리쌍(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라스베이거스쇼 같은 무대

다이나믹듀오 단독공연

다이나믹듀오가 힙합 공연에서는 보기 드문 풀 밴드 반주와 미국 라스베이거스 쇼를 연상시키는 무대로 4년 만의 단독 콘서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23~2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재즈·힙합 밴드 쿠마 파크는 색소폰과 기타, 베이스, 드럼 등으로 연주하며 최자(사진 오른쪽)와 개코(왼쪽)의 개성 넘치는 랩과 조화를 이룬다.

다이나믹듀오는 이번 공연을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쇼를 연상시키는 무대의 조명을 기반으로 바뀐 턴스 등 다양한 무대 연출을 선보인다.

이들은 서울 공연에 이어 3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다음달 7일 대구 경북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유순호기자

긴장감 더한 '사운드 오브 뮤직'

가수 박기영 마리아역 맡아 뮤지컬 첫 도전

동명의 영화로 유명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2006년 공연 이후 8년 만에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국내 무대에 다시 올려지는 이 뮤지컬은 다음달 6~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자연을 배경으로 폰 트랍가의 일곱 아이들을 돌보게 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청원수녀 마리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번 공연은 주인공인 대령과 마리아 외에 다양한 캐릭터의 비중을 높여 긴장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화려한 제작진과 배우들이 참여해 '도레미송'과 '에델바이스' 등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들려준다.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조셉 베이커가 편곡을 맡았나,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마리아 역으로 출연했던 재니퍼린 프렌치가 보이스 코치로 참여해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에 완성도를 높였다.

마리아 역은 지난해 12월 엄마가 된 가수 박기영(사진)이 맡아 뮤지컬에 처음 도전한다. MBC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했던 가수 소향과 뮤지컬배우 최윤정이 번갈아 연기한다. 폰 트랍 대령 역에는 이필모·박완 김현욱이 나섰다. 문의: 02)742-6194 /박지원기자 lak0427@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강민호 75억 · 정근우 70억 · 이용규 67억 · 장원삼 60억 · 이종욱 50억 · 최준석 35억 · 손시현 30억

이대호·류현진에게 큰절해야 할 '빅3'

Issue & View
막 내린 프로야구 FA 시장

15명 몸값 사상 최대 523억 '과열'… 이대로면 내년 100억원대 선수 나올 것
"모그룹 지원 없이는 운영 안되는 실림에 인건비만 폭등" 우려 목소리 커져

/유순호기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막을 내렸다. 9개 구단은 15명의 선수에게 총 523억5000만원을 쏟아부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겨울 시장인 2011년(261억5000만원)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

강민호가 4년간 75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몸값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한 것을 신호탄으로 정근우와 이용규가 한화 이글스와 4년 70억원과 67억원에 계약했다. 장원삼도 4년간 6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 라이온즈 잔류를 택하면서 2005년 심정수가 세운 최고 몸값 기록(4년 60억원)을 넘는 선수만 네 명이나 나왔다.

◆스토브리그 구단 성적표는

올해 FA 시장에서 가장 실속을 챙긴 팀은 한화다. 지난해 류현진을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로 보내고 받은 280억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화끈하게 풀었다. 이대수와 4년간 20억원, 한상훈과 4년간 13억원, 박정진과 2년간 8억원에 재계약하며 집안 단속을 한 데 이어 공격적으로 외부 FA 영입에 뛰어들었다.

사전접촉 의혹이 나올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여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진을 데려왔다. 정근우와 이용규가 가세하면서 내야와 외야의 안정을 꾀했고 김태균·최진행 등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폭발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군 진입 첫해에 7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NC 다이노스는 이종욱(4년 50억원)과 손시헌(4년 30억원)을 잡아 내년 시즌 4강까지 넘보는 전력을 갖췄다. 3년 연속 우승팀 삼성도 장원삼·박한이와 재계약하며 큰 전력 누수 없이 겨울 시장을 잘 끝냈다.

반면 준우승팀 두산 베어스는 예상 외의 타격을 입었다. 이종욱·손시헌·최준석(롯데) 등 전력의 핵심을 모두 놓친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SK 와이번스도 프랜차이즈 스타 정근우를 놓쳐 공·수·주에 걸쳐 큰 공백이 생겼다.

◆적절한 몸값인가 – 거품 논란

올해 FA 시장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거품 논란을 빚었다. FA 몸값은 과거 성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 결정되지만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강민호와 정근우·이용규를 이대호·류현진 효과로 인한 복불복 수혜자라 칭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대호를 비롯한 팀의 간판 스타를 매년 내보낸 롯데는 올해 관중이 전년보다 60만 명이나 줄어들면서 제대로 쓴맛을 봤다. 돌아선 부산 팬심을 돌릴 첫 번째 방법이 강민호 잡기였고, 롯데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투자했다. 강민호의 계약금은 올해 FA 협상의 기준 잣대가 됐고 내년에는 100억원대 FA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지만, 구조적으로 부실한 한국프로야구 시장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인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10년 2억7500만 달러)의 몸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그 정도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자생력을 지니고 있다.

입장권과 용품 판매 수익은 물론 막대한 TV 중계권료를 받는다. 반면 국내 야구단은 대기업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모기업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다.

구조적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결국 선수의 몫이다. 먹튀로 전락하느냐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시즌은 FA 대어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쏠쏠할 전망이다.

/sun@metroseoul.co.kr

◆2013년 자유계약선수 계약 현황

순위	선수	구단	계약내용
1	강민호	롯데	4년 75억
2	정근우	SK→한화	4년 70억
3	이용규	KIA→한화	4년 67억
4	장원삼	삼성	4년 60억
5	이종욱	두산→NC	4년 50억
6	최준석	두산→롯데	4년 35억
7	손시헌	두산→NC	4년 30억
8	박한이	삼성	4년 28억
9	이병규	LG	3년 25.5억
10	이대형	LG→KIA	4년 24억
11	이대수	한화	4년 20억
12	강영식	롯데	4년 17억
13	한상훈	한화	4년 13억
14	박정진	한화	2년 8억
15	권용관	LG	1년 1억

잡았을까? 놓쳤을까?? 미국프로농구 시카고 불스의 조아킴 노아(왼쪽)가 19일(현지시간)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샬럿 밥캐츠와의 경기에서 공을 살리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있다. /신화 뉴시스

리디아고 "드디어 GO!"

내일 개막되는 LPGA 시즌 최종전서 프로 데뷔

천재 소녀 리디아 고(16·뉴질랜드·사진)가 21일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달 프로 전향을 선언한 리디아 고는 프로 전향 후 처음으로 LPGA 투어 대회에 모습을 보인다.

원래 18세 이상이어야 LPGA 회원이 될 수 있지만 LPGA는 이미 2승을 올린 리디아 고에게 2014시즌부터 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요 선수들의 프로 데뷔전 결과를 살펴보면 타이거 우즈(미국)는 1996년 9월 밀워키오픈에서 공동 60위를 기록했고, 재미동포 미셸 위(24·나이키골프)는 2005년 10월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4위로 대회를 마쳤으나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또 알렉시스 톰프슨(18·미국)은 2010년 6월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컷 탈락했다.

◆박인비는 다관왕 도전

한편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박인비(25·KB금융그룹)도 이번 대회를 통해 다관왕에 도전한다.

/장상용기자

"4년 190억부터?" 이대호-소프트뱅크 내달초 협상시작

일본프로야구의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12월 초 이대호(31)와 본격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일본 닛칸스포츠는 "소프트뱅크가 이대호와 다음달 초 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계약 기간 3~4년에 총액 16억~18억 엔(약 169억~190억원)의 조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릭스 버펄로스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3년 총액 12억 엔(약 128억원)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다. 14일 이대호는 오릭스의 이 제안을 이미 거절한 바 있다.

또 닛칸스포츠는 올해 타율 0.303을 치고 2년 연속 일본에서 홈런 24개, 91타점을 올린 이대호를 두고 '검증된 우량 도우미'로 소개했다.

/[illegible]기자

프로농구 전적 19일

동부	22	19	18	12	71
전자랜드	21	20	20	23	84

프로배구 전적 19일

도로공사	3	0	GS칼텍스
삼성화재	3	0	우리카드